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공동교육과정 대폭 확대

1학기 온라인 28과목 36강좌 개설·수강신청 조기 마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대비해 올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크게 확대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1학년 1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마감 결과 지난해 20 강좌에서 36강좌로 크게 늘었다고 3월2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처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것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원하는 과목을 개설했다는 점이 주요했다. 고급 화학, 고급 지구과학, 고급 생명과학 등과 같은 심화과목과 교

육학, 철학, 심리학, 여행지리, 공학일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등 교양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을 적절하게 반영했다.

또한, 전 강좌가 쌍방향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고 수업의 질도 높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공학일반 과목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회로설계, 하드웨어 제작, 코딩 등 '아두이노 응용 조립제어 장치'를 제작하는 실습수업으로 운영한다.

이처럼, 전남교육청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원격수업에 강한 이유는 2017년부터

쌍방향 수업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착실하게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지역별로 학교 간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과목개설도 활발하게 이뤄져 120강좌 이상이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학과 지자체,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박경희 중등교육과장은 3월26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열린 '2021년 공동교육과정 수업강사 및 관학교사 연수'에 참석해 "고교학점제에서는 성적 상위 학생 뿐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가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며 "이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순천SW교육체험센터, 놀이중심 체험활동

순천교육지원청, SW교육체험센터 21교 54학급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은 3월24일부터 순천 및 광양, 구례 등 인근 초, 중학교 54학급 1,426명을 대상으로 '순천SW교육체험센터' 체험활동을 시작했다.

순천SW교육체험센터는 2019년부터 순천연향초 일반교실 3실을 리모델링하여 체험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2020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상상체험관을 확장·구축하였다.

순천조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7월까지 상반기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며, 방학중 특별프로그램, 하반기 체험활동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상상체험관이 구축되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SW교육체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상상해결실과 상상배움실에서 이루어

지는데, 상상해결실에서는 SW로 생태수도 순천 탐방하기, 신나는 우주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상배움실에서는 자율주행차 만들기, 신나는 건축물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상상체험관에서의 활동은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덕 교육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교육의 중요성 및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놀이중심 활동을 통하여 SW교육에 대한 친근감이 형성되고, 나아가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순천SW교육체험센터에서는 찾아가는 SW교육체험활동, 학부모 및 교원 연수, 동부권역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완도교육지원청, '신학기 학교적응지원 프로그램' 실시

학습유형검사 실시한 후 해석상담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장필) Wee센터는 신학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사들의 효율적인 학급 운영을 돕기 위한 '신학기 학교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학기를 맞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 3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되었으며, 3월에는 금일동초, 군외중, 신지중학교 학생과 교사 40여 명이 참

여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유형검사를 실시한 후 해석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과 태도, 성격 양식을 알아보고,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확인된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지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검사에 함께 참여한 한 교사는 "이 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과 학습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방식과 진로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도록 돕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완도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2학기에도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고 교사들의 학습지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검사들을 선정하여 도내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완도=이민혁기자

광주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본격 시동

광주시교육청이 빛고을혁신교육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배움·성장이라는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해 '빛고을학교자치 종합계획'을 각 기관 및 학교에 안내했고,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고 3월31일 밝혔다.

'빛고을학교자치 종합계획'은 '일상 속 학교민주주의, 함께 성장하는 학교공동체, 학생 시민으로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지향점으로 삼았고,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재정·인사·감사의 자율성

확대 ▲교육청의 학교지원기능 강화 등에 초점을 뒀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자치지원단을 구성·운영해 현장발착형 연수·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과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의 도움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하는 '학교자치회의'를 활성화해 교육주체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30~31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유·초·중등 전체 교육전문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전문직 연찬회'를 마련했다.

빛고을학교자치 정책방향 연수와 분임토의를 통해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 이강수 정책국장은 "학교현장의 화두는 학교자치이며 교육전문직으로서 학교 지원방안과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때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이 분산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학교 민주주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활성화 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대응력이 높았으며, 이는 학교자치의 힘이다"라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